

## 가난한 청년들... "50만원으로 한 달 버텨요"

월급 빠듯한 2030세대  
고금리 고물가 '뺏'에 걸려  
증시·코인·부동산 피해도  
신빈곤층으로 전락 우려

"결혼하고 내 집도 사고, 이젠 생각도 못하죠. 당장 주머니에 만원 짜리 한장도 없는데요."

15개월차 직장인 진모(여·26)씨는 고향인 목포를 떠나 광주에서 자취를 하며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녀의 한 달 월급은 세금을 떼면 약 190만원이다.

월세 30만원을 비롯해 관리비와 공과금 10만원, 통신비와 보험료 등 20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또 대학을 다닐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도 상환하고 있다. 급여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빠져나가는 돈만 100만 원 정도이다.

고정비용을 제하고 진씨에게 남는 돈은 90만원이 채 안된다.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주택 청약과 함께 청년희망적금도 30만원을 넣고 있다. 수중엔 50만원도 남지 않는다.

진씨는 "한달을 40만~50만원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며 "밥도 먹고 생필품도 사야 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다. 옷 한 번 사는 것도 비겁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33)씨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박씨의 월급은 세후 280만원 정도이다. 1년 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탓에 매달 120만원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자동차 할부금(30만원)과 공과금 및 보험료, 주유비 등을 더하면 한 달 고정지출은 200만원을 크게 웃돈다.

박씨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무리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끌어 모아 내 집을 마련했다"며 "신용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도 올라 경조사비를 내고 나면 월급으로는 한달 생활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돈 없는 청년'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갓 취업한 탓에 주머니가 여유롭지 못한 2030세대들이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당장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는 것이다.

증시와 코인, 부동산의 폭락과 금리 상승이 맞물려 빛의 뺏에 걸린 2030세대가 많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자칫 장기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113.18(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9.5% 상승했다. 이는 2009년 5월(10.2%)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가공식품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9.5% 상승하며 2009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일 물가가 치솟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오후 광주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품목별로 보면 73개 품목 중 70개 품목이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식용유(42.8%), 밀가루(36.9%), 부침가루(30.8%), 국수(29.7%), 물엿(28.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73개 품목 중 54개 품목이 상승했다. 10개 중 7개 품목 오른 것이다. 치즈(11.0%), 라면(8.9%), 시리얼(8.1%), 두유(8.0%), 스낵과자(8.0%) 등의 상승 폭이 가팔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 대비 1.6% 올라 지난 3월(1.7%)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물가가 역대 최대 상승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식품업계가 먹거리에 대한 가격 인상을 재차 예고함에 따라 청년들의 물가 부담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이날부터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 등 13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9.7% 인상하고 팔도는 이달 비락식혜와 보로로 등 음료 8종의 출고가를 평균 7.3% 올렸다.

또 낙농가와 유업체가 원유(原乳) 기본가격을 l당 49원 올리기로 하면서 유제품뿐만 아니라 이를 재료로 쓰는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 수많은 제품들의 가격 역시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광주지역 청년들의 대출이 증가한 상황

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물가마저 올라 지출이 늘게 되면서 '청년 빈곤층'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20~30대 가계대출 증가율은 1분기 기준 2020년과 2021년 각각 7.3%, 7.4%를 기록하다가, 올해 9.6%로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의 20~3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9년 1만410명에서

2020년 1만2168명으로 16.88%(1758명) 증가했고, 2021년에는 1만3393명으로 전년 대비 10.08%(1225명) 늘었다.

광주은행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투자에 나섰던 2030세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이 더해진 탓에 급여가 낮은 청년층은 생계 자체가 어려운 신빈곤층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1%대... 기준금리 3.75% 예상"

#### 2023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

글로벌 통화긴축 영향 본격화로 수출 동력이 약화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 경기가 둔화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격랑의 한국 경제, 전망과 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예상을 내놨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

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 코로나 이후 수출 위주 회복세를 보인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여건"이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 8월 현재 2.1%이지만 1%대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와 환율 전망'으로 발제한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내년 초 미국 정책금리 상단은 4.75%, 한국 기준금리는 3.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원화가치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  
181일 만에 1기 내각 완성  
청문보고서 없이 14번째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는 불발됐다.

이 부총리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4번째 고위직 인사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로써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새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역대 정부 사례에 비추면 2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은 출범 195일 만에 완성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청문보고서 미제출 인사 임명 강행으로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언론의 질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금 14번째(임명 강행)이라 했는데(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인사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당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후보자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청문보고서에 명기해 채택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야당이 이를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치 과정 자체가 협치의 과정"이라며 "지난번 대통령이 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것도 협치 행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우주소' 지구에 가린 달, 달에 가린 천왕성 ▶2면

무궁화호 탈선...서울행 지역민들 큰 불편 ▶6면

굿모닝 예행 -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18·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최초 분양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공원이 품은 집.**  
전남대입구 산이고운 신용PARK  
신용공원을 품은 산이고운에서  
공원과 하나되는 힐링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중도금 무이자** **11월 OPEN** 예정

생활의 가치를 올리는  
**PREMIUM 7**

- 01** 쾌적한 파크라이프 (신용공원 초인접)
- 02** 도보 통학 가능한 우수 교육환경 (태봉초, 경신여고 등)
- 03** 빨라진 광역교통망 (광주역, 제2순환도로 등)
- 04** 풍부한 생활인프라 (백화점, 이마트 등 윈스톱)
- 05** 완벽한 혁신설계 (공원형 친환경 아파트)
- 06** 스마트한 인공지능 라이프 (KT 기가지니 적용)
- 07** 다양하게 누리는 커뮤니티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

84㎡A·B·C·D·E 총 265세대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90-2번지  
문의 062) **375-0508**  
시행주택: 우리자산신축 시행주택 프레스개발(주) | 서울 **SANIP 산이건설(주)**  
※ 상기 투시는 사업승인 도면용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정석제, 옥탑부, 창호형태, 외부색채 및 마감, 포장재, 시설물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